

# 建築許可制限 措置에

## 庶民生活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多世帶・多家口 住宅, 近隣

최근 우리나라의 經濟難國을 打開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중 過熱建設景氣 진정을 위한 建築許可規制와 관련하여 全國 3千7百餘 建築士一同은 깊은 우려와 함께 유감의 뜻을 표하며, 建築專門人이자 國民의 입장에서 이의 合理的이고 效率的인 改善을 촉구하는 뜻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立場을 表明합니다.

1. 최근 建設景氣의 過熱樣狀은 순수한 民間部門의 建築行爲에서만 起因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추진해 온 住宅政策은 庶民을 비롯한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음은 물론,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住宅 및 傳貰價에 폭등과 국민간의 違和感을 진정시키는데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過熱建設景氣 誘發과 각종 資材 및 人力의 부족등 많은 副作用이 발생 되고 있는 것도 否定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렇듯 최근 建設景氣가 과열되게 된 데에는 정부의 주택정책과 土地超過利得稅 新設로 가수요가 급증한 데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民間部門의 건축행위를 대폭 규제함은 물론, 심지어 수요자가 실제로 주택을 필요로 하는 庶民들이고 事業者 또한 소규모 零細住宅 事業者들이 주체가 되고 있는 다세대·다가구주택까지도 許可規制 對象에 포함하였음은 過熱建設景氣 鎮靜問題 못지 않게 중요한 다수 庶民들의 꿈과 희망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2. 庶民生活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多世帶・多家口 住宅, 近隣生活施設은 建築許可規制 대상에서 除外되어야 합니다.

建築許可規制措置는 국민경제상 불가피한 措置였다하더라도 국민생활에 필요한 近隣生活施設과 특히,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多世帶・多家口住宅에 대한 建築許可만은 차공시기를 調整하는 방향으로 改善되어야 하겠습니까.

# 따른 우리의 立場

生活施設은 建築許可規制 대상에서 除外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住宅政策에 있어 國民住宅規模의 하향조정과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의 분양방법 개선, 不動產投機根絶등도 과열된 건설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는 主要方案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점에 대하여도 적극 再檢討 되어야 하겠습니다.

3. 建築許可規模의 전면적인 凍結措置보다는 신축성있게 착공시기를 정하여 許可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建築許可規模措置가 일정기간 경과한 후 일시에 해제될 경우에는 또다시 建設過熱現象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의 방지를 위하여 전면적인 규제조치 보다는 자재, 인력등의 수급능력을 감안하고 建築物을 用途, 規模別로 적정하게 안배하여 착공시기를 지정해 줌으로써 신축성있는 運用方案이 모색될 수 있도록 금번 조치가 補完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全國 建築士一同은 우리 立場이 반영될 수 있도록 政府 當局에 촉구드리면서 당면한 國民經濟難國의 극복과 선진국가건설을 위하여 전문직능인으로서의 맡은 바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사회전반에 걸쳐 폭넓게 만연되고 있는 過消費 追放에 앞장서고 汎國民的 새질서·새생활운동에 적극 同參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다짐합니다.

1991年 9月 日

大韓建築士協會 會長  
全國 15個 市·道建築士會 會長 外  
3千7百餘 會員一同